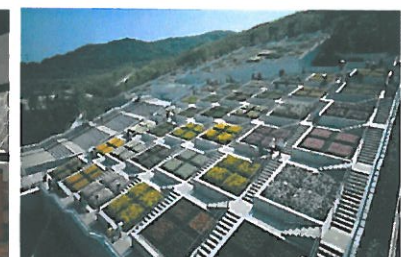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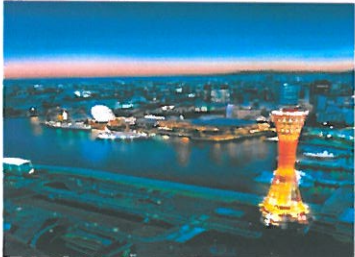



성남아트센터와 함께하는 2015 미로(美路)찾기 프로젝트



2015 미로(美路)찾기 프로젝트의 의미

미로

1. 미로에는 반드시 입구와 출구가 있으며
입구에서 출구까지 미로를 통과하는 자는
숨겨진 지식을 얻는 '지혜로운 자',
'깨닫는 자'가 되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뜻을
의미 합니다
2. 미로같이 복잡해 보이는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 역사, 환경 등을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길((美路)을
따라 여행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시작되는 미로 프로젝트는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안도 타다오



안도 타다오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젊은시절에는 프로 권투선수 생활을 하다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각국을 여행하면서 건축을 독학으로 배웠다. 1975년 오사카에 지어진 「아즈마주택」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은 그 다양한 형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니는 문화적 특수성과 근대건축이 지향하였던 보편화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은 형태적인 강렬함, 공간적 스케일, 수학적 명쾌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을 가리는 것 없이 재료 자체를 드러나도록 만들어 '건축의 누드작가'로 불린다. 이것은 안도가 추구하는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에 반영되어, '안도식 콘크리트' 건축을 낳으며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통한 침묵의 건축을 만들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는 항상 3가지의 특징적인 성격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첫번째는, **Geometry**- 건축물 자체에 있어서 완벽한 기하학을 구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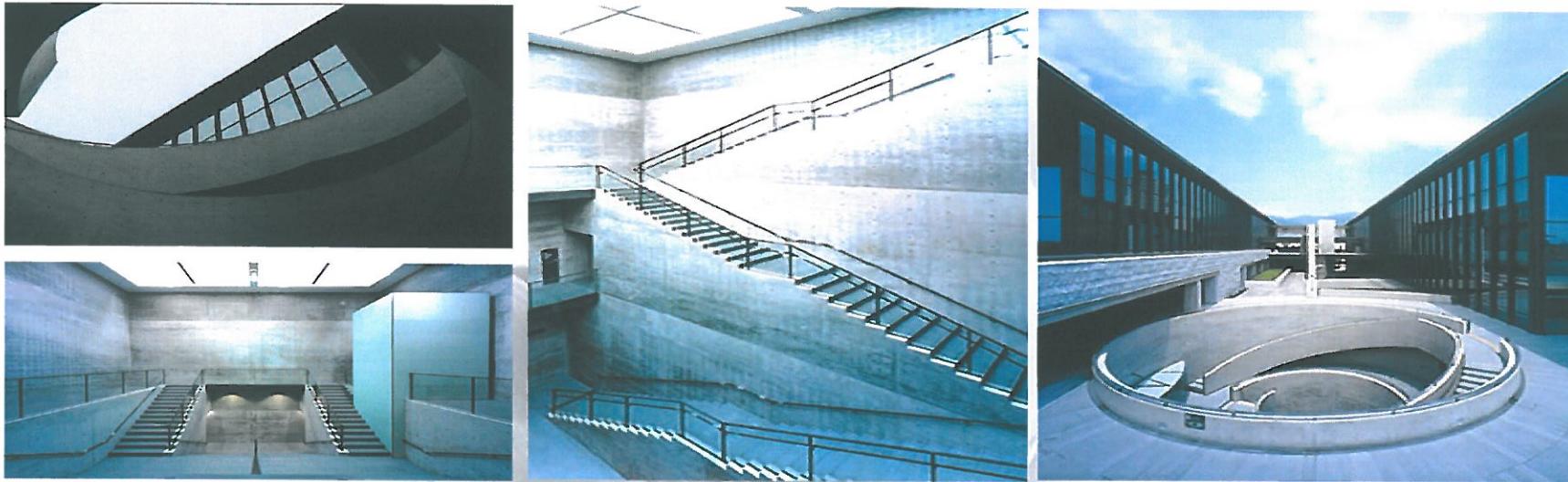
두번째는, **Nature**- 건축물에는 자연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자연과 건축물을 조화롭게 만든다. 이때 사용하는 자연이란 인위적인 자연, 즉 물을 이용한 연못과 나무를 이용한 마당 그리고 유리를 이용한 빛을 뜻한다. 그의 건축 작품에는 늘 물, 바람, 나무, 그리고 하늘의 공허함 등이 어떤 모습으로든 건축과 결합하고 있다. 이 같이 거의 건축관은 건축물의 명칭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 물의 교회, 물위의 박물관 등으로 묘사되곤 한다.

세번째로, **Substance**- 진솔한 건축재료인 콘크리트(Unfinished Concrete)와 유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정신이다.

-물, 빛, 콘크리트, 벽-

안도 타다오의 건축의 최종목적은 인간의 생활공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내려는 것으로 그가 보는 건축의 본질은 단순한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공간의 구축이다. 안도의 건축 속에 나타나는 '물'은 인위적으로 단속된 고인 물이라기보다 쉴 새 없이 변화하는 자연의 속성을 담고 있으며, 그는 이를 '흐르듯 흐르지 않는' 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물은 영역성도 포함하고 건축물의 독자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도 한다. 즉, 건축물과 주변 상황과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도 타다오는 주로 얇은 물을 사용하고 조용히 흐르는 물을 구현시키며 건축적으로는 목적 공간에 도달하기 전의 과정적 부분으로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감성 마케팅 - 효고현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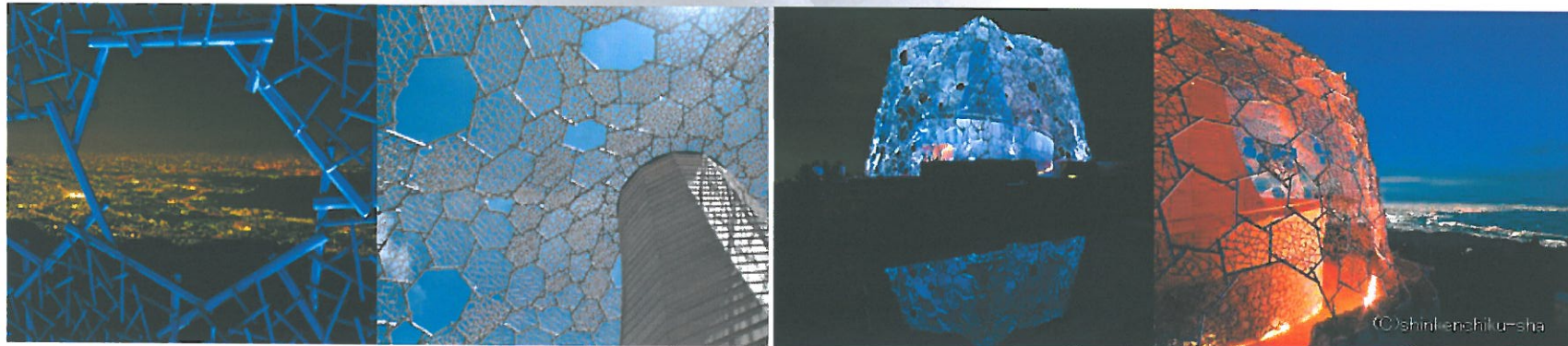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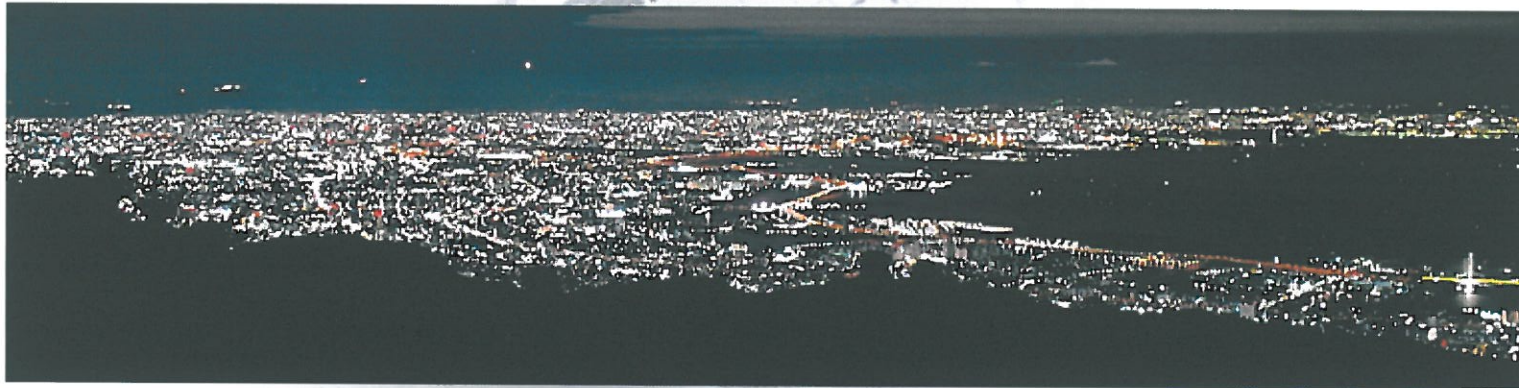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 설계에 의한 미술관에는 볼만한 곳이 가득하다. 미술작품의 전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의 융합 장소로 설계된 이 건물은 단순 명쾌한 구성 속에서 복잡 다양한 공간체험을 실현되고 있다. 감수성을 높여, 명상으로 유혹하는 안정된 분위기의 엔트런스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의 빛이 충만히 쏟아지는 전시실을 둘러싼 유리로 된 회랑 등, 건축내부 각처가 각각 음영으로 많은 표정을 보여준다. 더욱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와 이 거대 미로와 같은 건물이 일체가 되어 여러 가지빛의 변화를 연출한다. 방문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미술관, 망설이는 것도 불편함도 또한 변화되어 가는 이 미술관 건축 장치를 찾아내는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롯데산 전망대 가든 테라스, 롯데 시다레

전국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야경 순위 상위에 들어가는 아주 인기 스포트. 고베의 시가지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야경 외에도 세련된 숍과 레스토랑, 사계절의 자연 등 데이트 장소로서 추천할 수 있는 곳이다. 고베·롯데산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2010년7월에 탄생된 전망대. 아카시 해협에서 오사카 평야,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오사카만을 바라볼 수 있다. 롯데산의 자연과 건물의 일체화를 목표로 한 설계이며 사계절을 통해 롯데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래와는 다르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망대이다.

롯데 시다레: 산 위의 한그루 나무를 컨셉으로 한 자연체감 전망대로 나무가 지중의 물을 흡수하듯이, 바람의 흐름을 호흡하는 전망대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듯한 지구와 일체가 된 건물이다.



오츠카 국제미술관 - 세계 명화를 한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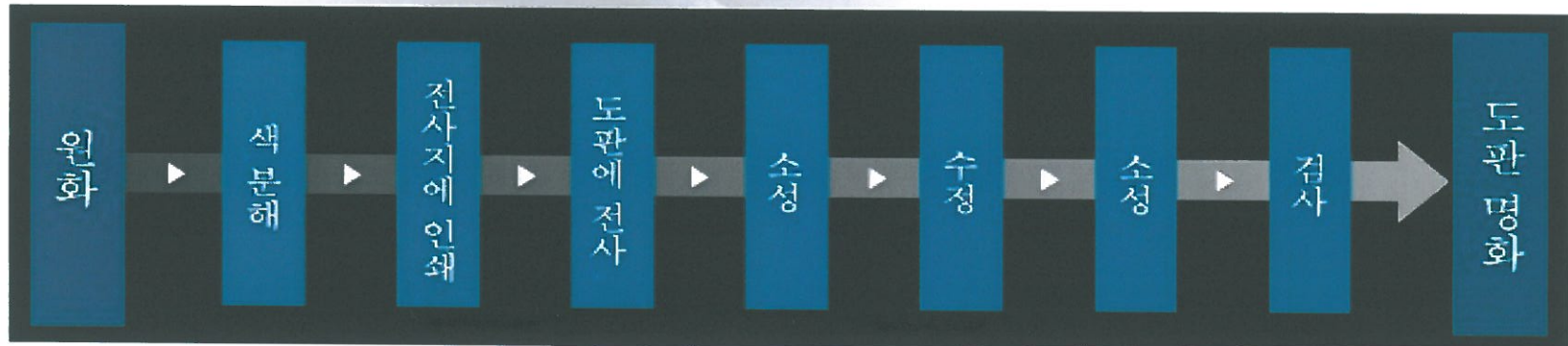
오츠카 국제미술관은 오츠카 제약그룹이 창립 75주년 기념사업으로서 토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설립한 일본 최대의 상설전시공간(연면적29,412m³)을 보유한 '도판명화미술관'이다. 관 내에는 고대 벽화에서부터 세계 25개국 190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대회화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서양화 1,074점을 오츠카의 특수기술에 의해 원작과 같은 크기로 재현하고 있다. 이것은 미술시적이나 교과서와 달리 원화가 갖는 본래의 미술적 가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며, 일본에서 세계의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다.



도판명화기술

'도판' 명화 미술관이라는 이름 그대로 '도자기로 만든 커다란 판'에 원작과 동일한 색채와 크기로 재현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미술관이다. 도판에 재현되었기 때문에 종이나 캔버스, 흙벽에 비해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 앞으로 도판화는 문화재의 기록 및 보전에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외부 전시불가인 '게르니카'를 비롯하여 전쟁으로 인해 흩어졌던 엘 그레코의 제단화를 복원하는 등 획기적인 기획도 시도되어, 일본 최대 규모의 상설 전시 공간을 자랑하는 관 내에는 현재 오츠카 오오미 도업주식회사의 특수 기술로 도판에 복제된 세계의 명화 1,000여 점이 원작과 동일한 크기와 모습으로 도판에 재현되어 한 자리에서 전시되고 있다. 작품 평가를 위해 미술관을 방문한 피카소의 아들 및 미로의 손자들, 그리고 각국의 미술관 관장과 직원들은 미술관과 작품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와 같이 '오츠카 국제미술관'은 기술뿐만 아니라 기발한 구상에 있어서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도판명화의
제작과정



오츠카 국제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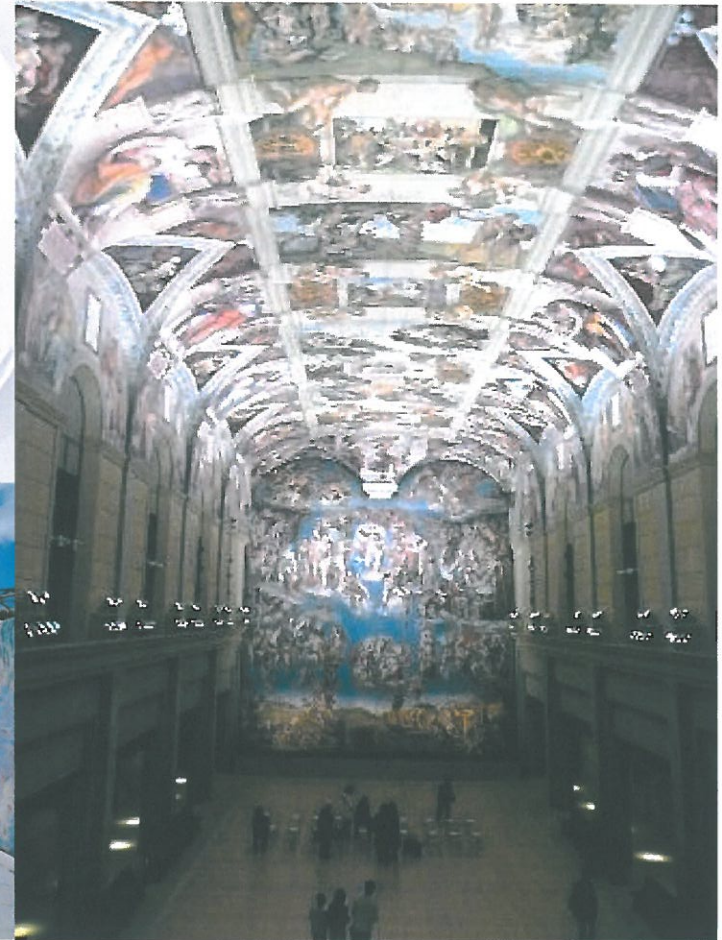
전시작품

기본적으로는 중세 미술관 회화 위주로 전시되어 있으며 미술애호가들이나 전문가적식견을 가진 전공자정도의 수준에서 알고있는 대부분의 작품이 1,000점 넘게 망라됨. 전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사실상 원작감상이 불가능한 주요작품에 대해서도 원작에 가장 근접하게 복제하여 마치 실제의 원작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만큼 정교함.

환경별 전시

고대 유적이거나 교회 등의 벽화를 주변공간까지 그대로 재현한 세계 최초의 현장감 넘치는 입체전시관.

-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 스크로베니 예배당 파도 파, 이탈리아
- 성 마르탱 성당 벽화 노앙, 프랑스 / 미스터리의 집들 폼페이, 이탈리아
- 모네 수련 오랑주리 미술관, 프랑스



오츠카 국제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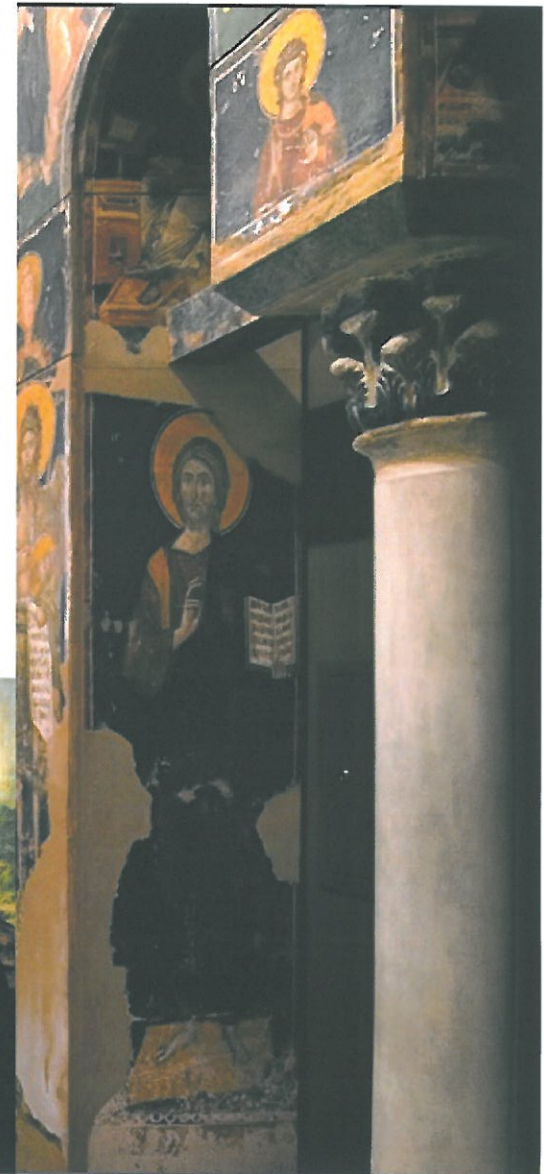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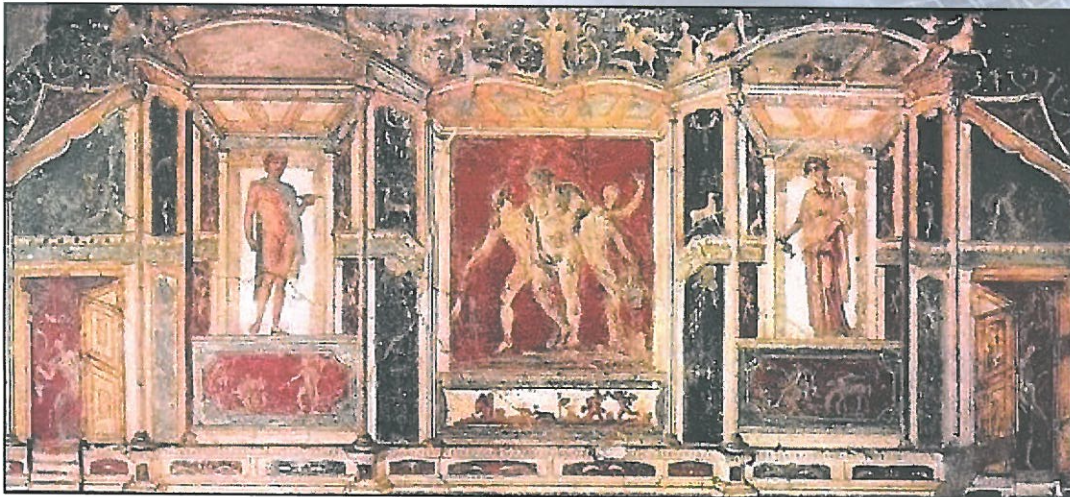
시대별 전시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서양미술의 변천을 미술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 그림, 폼페이의 벽화, 모자이크화 등 약 130점
- 중세: 이콘, 성당의 벽화 등 약 100점
- 르네상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등 약 140점
- 바로크: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고야 등 약 120점
- 근대: 터너, 밀레, 르누아르, 고호, 세잔느, 고갱, 뭉크 등 약 330점
- 현대: 피카소, 밀로, 달리 등 약 100점

테마별 전시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이며 보편적인 주제 등, 시대를 초월하여 고금의 화가들이 그린 대표적인 작품들을 전시. 각각의 표현방법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KOBE 철인 PROJECT-애니메이션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KOBE 철인 PROJECT (고베 철인 프로젝트)는 효고현 고베시 나가타구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고베시 출신의 만화가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작품을 콘텐츠 중심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지역과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교류와 산업진흥의 활성화를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코야마 미츠테루 작품의 대표작 "철인 28호"에서 힌트를 프로젝트 이름 (NPO) 이름이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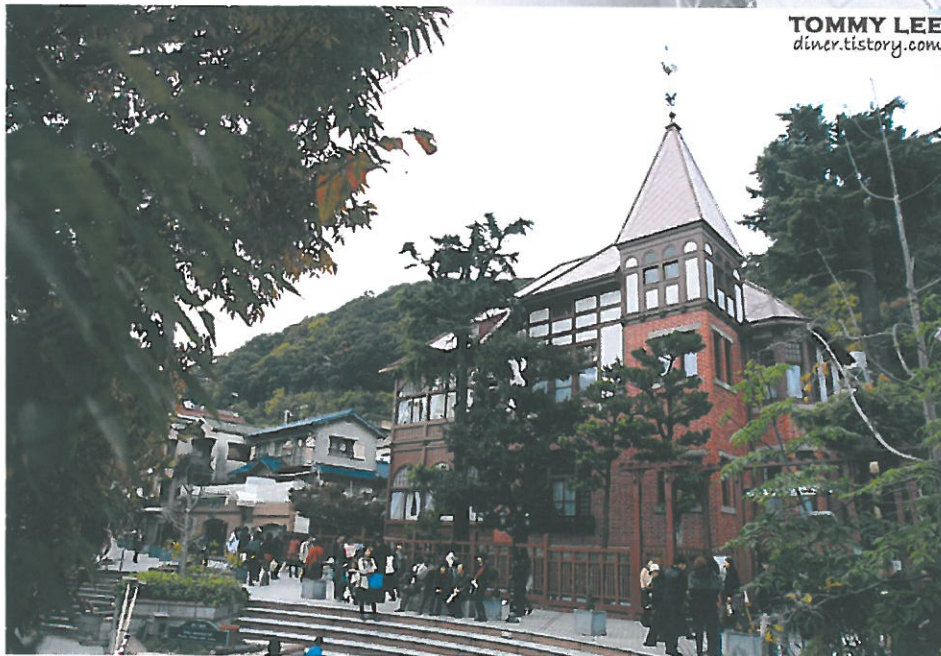
2009년 9월 29일이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철인 28호의 거대한 기념물 (높이 15.3미터, 직립면 18미터가된다 크기)가 新長田 역전의 와카 마츠 공원에 완성했다.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주요작품 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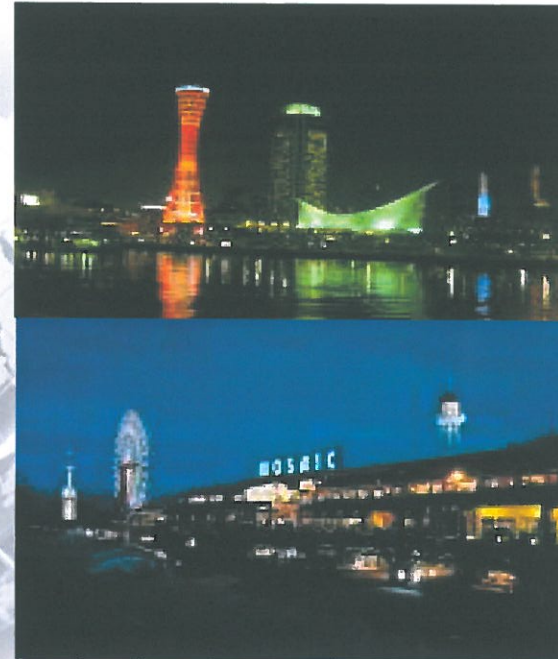
철인 28호, 바벨 2세, 중국사전략 삼국지 60권, 은주 전설(殷周傳説), 다케다 신겐,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이 있다.

이진칸 거리 - 이국적 풍취

이진칸[異人館]은 일본에서 바쿠후시대[幕府時代] 말기부터 메이지시대[明治時代]에 주로 서양인이 주택으로 건설한 건물을 말한다. 이 시대 외국인의 주거지는 정부에서 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현재 무리지어 많이 남아있는 곳은 고베[神戸]와 나가사키[長崎]이다. 고베의 이진칸 거리는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기타노정[北野町]에 있다. 기타노정의 역사는 오래되어 다이라노키요모리[平清盛]가 교토[京都]의 기타노텐만구[北野天満宮]를 모방하여 기타노신사[北野神社]를 건립한 것이 시작이다. 이진칸 거리는 1867년 고베항[神戸港]의 개항과 더불어 외국인 주택지로 조성되었다. 이전에는 1,000채 가까운 이진칸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타노정 주변에 30여 채만 남아있다. 최근 공개하는 건물이 늘어나면서 20여 채의 이진칸을 견학할 수 있다. 이진칸을 이용한 부티크와 레스토랑도 많다.



메리켄파크 모자이크 물-고베 랜드마크



고베항의 개항 120주년을 맞아 조성한 공원이다. 이곳에 있는 고베해양박물관의 지붕은 파도와 범선을 본떠 만들었다. 공원의 가운데에는 고베의 상징물인 108m짜리 포트타워가 있어 전망대 구실을 한다. 포트터미널에서는 호화로운 외국의 여객선들을 본떠 만든 유람선을 탈 수 있으며, 배를 타고 멀리 아카시 해협대교까지 둘러볼 수도 있다. 건너편에는 인공섬인 포트아일랜드와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는 모자이크몰이 있다.

청수사, 니넨자카, 산넨자카



청수사, 즉 키요미즈데라는 교토 히가시아마의 중앙, 오토와 산 배경에 둘러싸여 있고 높은 키타마루에서는 교토의 절반을 내려다 볼 수 있고, 봄에는 사쿠라, 가을에는 단풍으로 경관이 훌륭하다. 관세음보타낙의 극락 정토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장수와 학문, 건강을 중요시하는 곳이다.

청수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니넨자카의 길을 거쳐 올라가고 내려 올 때는 넘어지면 3년 안에 죽거나 수명이 3년 단축된다는 산넨자카로 내려온다. 히가시아마(산) 기슭에 위치하며 '키요미즈데라 절', '고다이지 절', '야사카 신사' 등의 교토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로 둘러싸여 있다. 교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다케히사 유메지'의 옛 집터도 보존되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 부인의 이름인 「기타노만도코로」을 딴 '네네노 사카'로도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쓰레기 소각장-舞州工場(예술, 에코로지의 융합)

마이시마 공장(舞洲工場)은 오사카시가 1997년 건설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면적은 약 3만 3천 평방미터, 철근 콘크리트 7층, 총 공사비 약 609억 엔으로 지어져 있다. 하루 평균 900톤의 쓰레기 소각과 170톤의 대형 쓰레기를 분쇄, 최대한의 공해방지와 남은 열을 이용, 옥상에서 내린 빗물 등의 이용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특징적이고 유니크한 외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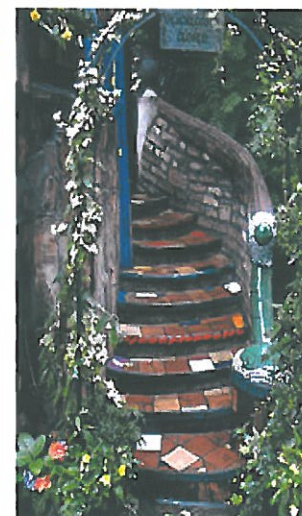
한신고속 해안선에서 금색의 탑(쓰레기를 소각할 때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눈에 들어 온다. 이러한 개성 있는 마이시마 공장의 디자인은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씨에 의한 것이다.. 훈데르트바서씨는 독자적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해 온 분으로 근대건축의 직선적 요소를 비판. 건축에 인간성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 하였다. 뒷이야기로 이분은 “직선은 신에 대한 모독이며 부도덕이다” 라는 신념이 강하여, 바지나 셔츠를 다리지 않고 구두도 좌우 비대칭의 색을 신고 다녔다고 한다.

그의 그러한 사상이 마이시마 공장에도 적용되어 곳곳의 형상에는 의식적인 곡선이 채용되어 건물의 창문도 하나하나 전부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벽면의 빨강과 노랑의 스트라이프는 공장내부에서 소각하는 불꽃을 이미지화 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제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의 유작작품이 마이시마 공장의 옆에 하수처리시설로써 현재 건설 중이다.



4 훈데르트바서 '베른바흐에의 헌정', 1987 새로 생긴 문화 공간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 (Friedensreich Hundertwasser)

1928-2000, 빈 출생, 회화작가, 건축가, 자연주의자.

젊은 시절부터 세계각지를 방랑하던 중, 강렬한 개성의 화가적 재능 발휘, 세계순회전을 5대륙, 36도시에서 개최하여 호평을 받음.

또 환경보호를 주창하여, 세계각지에서 강연하고, 시영집합주택,

쓰레기소각공장등의 환경보호건축물을 빈에서 설계하여, 세계적인 평판을 받았다. 미국, 유럽등 세계각지의 환경보호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1981년 오스트리아 국가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세계적인 건축가이다. 훈데르트바서의 회화양식은 원시적인 화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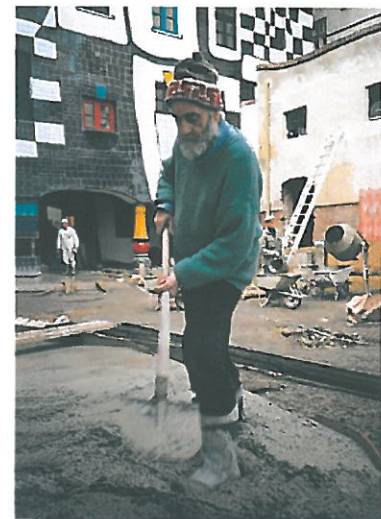
색채와 나선형의 선이다. 이것은 1950년대 초 모로코와 튀니지에서

체류할 당시 아라비아 미술과 아프리카의 원시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출발한 그의 예술철학을 엿볼 수 있다. 1952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나선형 그림과 화려한 색채 등 당시 그의 개성과 퍼포먼스는 반향을 일으킨다. 그의 자연주의 사상과 철학은 사회를 비롯해 특히 건축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합리주의에 극명하게 반했다. 특히 1958년 근대건축의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선언문을 한 수도원의 학회에서 낭독한 일은 그가 자신의 예술 철학을 그림 말고도 건축이나 실생활에서도 적용하려고 했던 행위 중 하나였다.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는 삭막하고 특징이나 국적 없는 현대주택을 지양하고,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건축물을 목표로 하여 과거 왕이 살던 위엄 있는 왕궁과 같은 대중의 집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렬한 색채와 서로 다른 모양의 창틀, 둥근 탑, 곡선으로 이루어진 복도 등이 조화를 이루며, 스카이라인이 신과 사람을 맺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생각 아래 중요시하였다.

*쿤스트하우스 빈(Kunst Haus Wien) (1989~1991): 공장을 뮤지엄으로 개축, 개관 3년만에 60만명의 입장객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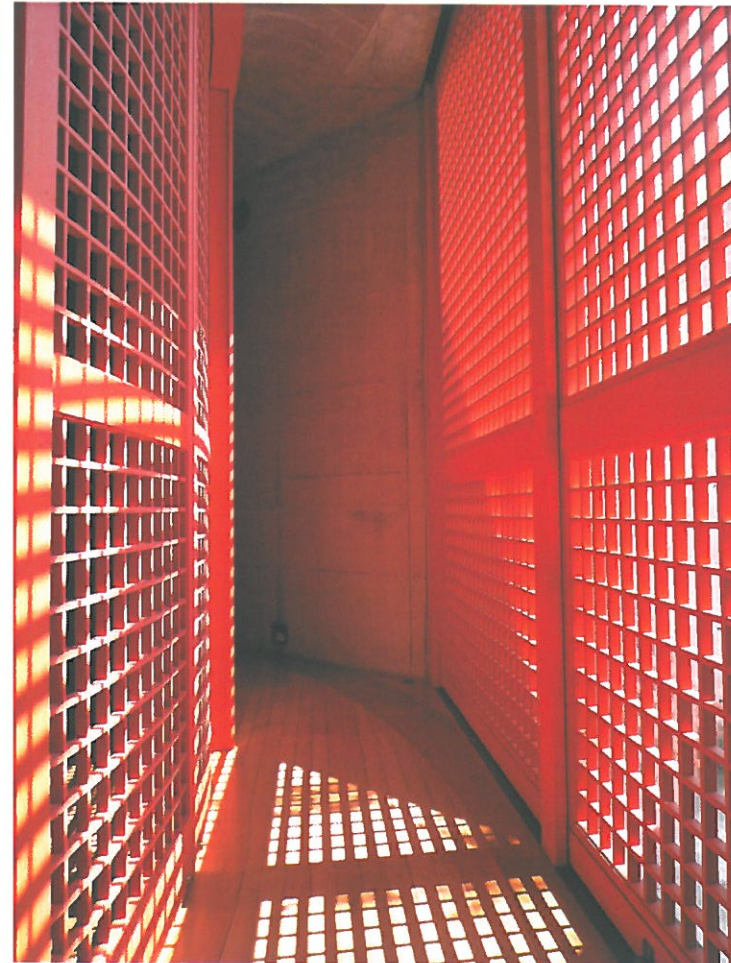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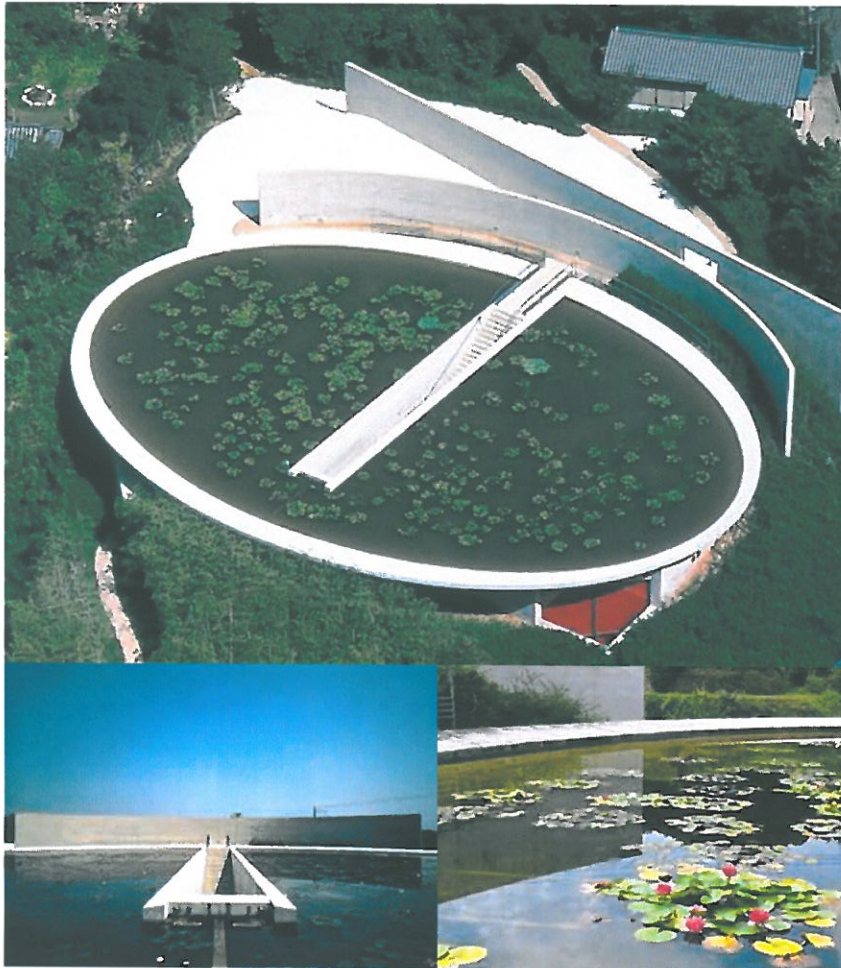
*스피틀라우 소각공장 (1988 ~ 1992): 기존의 쓰레기소각장 개장, 테크놀로지, 에콜로지, 아트가 융화한 프로젝트로 '쓰레기없는 사회' 실현을 향한 기념비적인 작품



훈데르트바서는 예술과 삶의 통합에 그의 초점을 맞추었고, 후에 그는 자연과 융화하는 삶을 살았다

물도서관 -안도 타다오의 대표작

헤이안 시대 후기에 창건된 절. 철근 콘크리트조의 타원형 연못 아래에, 1991년에 준공된 안도 씨가 설계한 철근 콘크리트조의 본당이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안도 씨의 '창조력이 권력을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 오사카 시내 탐방

'선'과 '각'을 맞춘 간판들이 건물 벽에 도열하듯 배치돼 있어 절제미마저 느껴지는 다른 일본의 거리와 달리 독특한 디자인과 광고의 캐릭터화로 유명한, 무질서하지만 오히려 그 무질서함이 오묘하게 조화되어 아름다운 도톤보리, 신사이바시를 만난다.

